

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 리얼좌담회

# “청소년통일교육, 이제부터 시작입니다!”



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의 <통일바람개비> 창간을 맞이하여 ‘청소년이 생각하는 통일교육의 현재와 미래’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.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이 함께 했으며 이원규 우리겨레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 사무차장의 사회로 시청자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됐다. 정리 이원규 사무차장 hanabs@empal.com

- 사회·정리 : 이원규 사무차장
- 사진 : 이상호 기획부장
- 장소 : 시청자미디어센터
- 일시 : 2008. 8. 8. 15 : 00



김 경 희 기자(부산진여상 3)



오 윤 정 기자(부산진여상 2)



신 화 정 기자(대덕여고 2)



우 도 양 기자(대덕여고 2)

##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볼게요. 솔직히 청소년들은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
**오윤정** : 솔직히 청소년들이 통일이 돼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이 죽은 후에나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많아요. 통일되면 피해가 많을 거라 생각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죠.

**신화정** : 60년 넘게 분단된 채 살다보니 서로에 대해 잘 몰라 오해도 많고, 말투나 행동만 보고 회화화하기도 하는데, 이런 게 통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.

##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모양인데, 긍정적으로 느끼는 측면은 없나요?

**오윤정** : 경제적 피해를 많이 걱정하지만, 사실 분단으로 군사비 지출 등이 많고, 통일이 되었을 때는 관광지 개발, 지하자원 이용 등 연계 되는 이익이 클 거 같아요. 통일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.

**신화정** : 아무래도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통일의 가장 큰 긍정적인 면 아닐까요?

**조은선** : 통일이 되면 남북 간 철도가 부설되어 러시아, 유럽까지 뻗어가기에 무역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게 들 거 같아요. (여기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.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걸까?)

## 더 이상 긍정적인 측면이 없나요? 그럼, 그냥 ‘이대로 통일하지 말고 살자’ 라고 결론내야 하나요? (일동 웃음) 간단히 정리하는 의미에서 물어볼게요. 청소년들은 통일에 긍정적 여론이 많은가요. 부정적 여론이 많은가요.

모두 : 부정적 여론이요.

## 어허~ 큰일이군요. 혹시 청소년들이 6.15공동선언 같은 합의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까?

**이건준** : (헛기침 한번~) 저도 이거 (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) 하기 전에는 ‘그런 선언이 있나보다’ 정도였고, 지금도 애들하고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삼천포로 잘 빠집니다. 통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.

**조은선** : 솔직히 교과서에 조금 실려 있는 거 외에는 우리에게 통일에 대해 말 안 해줘요. 6.15선언 이런 것도 언급이 없고. 저도 기자단하면서 사전 찾아보고 알게 되었어요. 교육부가 통일에도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요.

**윤동석** : 애들하고 이런 이야기 해 본적이 없어서 아이들의 생각이 어떤지 이야기해 줄 수가 없네요.

## 무관심이라... 여러분, 혹시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아본 적은 있나요?

**우도양** : 초등학교 4학년 때, 북에 가족을 두고 온

참전용사를 초청해서 이산가족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. 딱 한번이었죠.

**이건준** : 저도 초등학교 때 북측의 문화에 대해 배웠는데, 쉬는 시간 같았어요. 통일내용이 도덕책 맨 뒤에 잠깐씩 수록되어 있었는데, 수업이 초스피드로 진행 됐어요.

**김경희** : 저는 앞에 학생들보다 통일교육을 많이 받아본 축에 속하는데요. 중학교 때는 선생님께서 통일에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애들이 부정적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, 고등학교 때 남북 언어 비교, 북측 생활영상 등을 보면서 제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었어요.

## 통일교육을 받으면서 좋았던 적은 없었나요?

**이건준** : 솔직히 좋았던 적은 없었구요. 기왕에 할 거면 제대로 계획을 잡고 하면 좋겠는데, 교재도 대중 만든 느낌이 났어요.

## 통일교육이 내용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거 같은데, 어떤 통일교육을 하면 좋을까요?

**오윤정** : 통일교육의 양을 늘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통점을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통일에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면 좋겠어요.

**윤효정** : 앞으로 통일에 대해 배운다면 동영상이나 체험 등을 통해 쉽게 다가가면 좋겠어요.

**이건준** : 맞습니다. 교실 밖에서 활동위주의 교육이 좋아요. 남북 청소년이 만나서 산을 타거나 축구를 한다거나 이런 거요.

**우도양** : 어렸을 때부터 ‘북측경제가 어렵다. 시대에 뒤 떨어진다’는 이야기만 들어왔어요. 그러다보니 이질감이 생기고 안 좋은 것 같아요. 예전에 북측에서 아리랑공연을 할 때, 뉴스에서 북측 학생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. 최선을 다하는 모습, 서로 협력이 잘 이뤄지는 점 이런 것들은 본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

**김경희** : 남측처럼 북측에서도 통일을 위해 노력을 할텐데,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돼야 할 것 같아요.

**신화정** : TV나 신문에서 같은 모습, 같은 놀이문화를 비중 있게 다뤄줘서 동질감을 회복해 가면 좋겠어요.

**이건준** : TV, 신문뿐 아니라 인터넷에도 통일에 대한 컨텐츠가 많이 만들어져서 북측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할 거예요.

**김경희** : 남북공동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서로의 문화와 생각들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요.

**우도양** : 학교에서 통일백일장을 진행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북측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. 편지교류도 좋은 방법 같네요.